

의대 교수들 줄사표... 전남대·조선대도 동참

25일 전남대 20명·조선대 16명 사직서 제출하고 진료 시간 축소
2000명 증원에 막혀 출구 못 찾아... 윤 대통령 "긴밀히 소통해달라"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됐다.

〈관련 기사 6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유연한 대응과 긴밀한 소통을 거듭 요구하면서 향후 의·정(의료계와 정부) 대화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본격적인 대화나 협의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협의의 대상에 포함해 의·정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의과대학생, 전공의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첫날 전남대 의대교수 20여명과 조선대 의대교수 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남대와 조선대뿐 아니라 전국 의대교수들이 이날 사직서를 내거나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교수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에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전임·임상교수들은 이날 온라인 총회를 연 뒤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전남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 것이다.

같은 핵심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없다는 것이 교수들의 생각이다.

반면 정부는 2000명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과 진료시간 축소를 이날 예정대로 감행했다.

전의교협은 "정부에 의한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등은 예정대로 금일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의 전제 조건으로 ▲전공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두고 명예를 회복할 것 ▲정부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마련할 것 ▲의대 정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수립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수들까지 단체사직을 시작하면서 의료 붕괴의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의료계와 더 긴밀한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대화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또는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 방안으로 면허정지 시점 유예, 정지 개월수 단축, 정지 처분 철회 등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료계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해오다, 전남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처리'를 언급하며 유화적 협상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화 국면에는 한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누구와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방면으로 협의의 일정을 타진하고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 총회'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무안공항, 중국·일본·몽골 정기노선 뜬다 ▶2면

타이거즈 전남대-양현종 승리 사냥 나서 ▶19면

동내책방 나들이-고흥 녹동 '더바구니' ▶22면

여자배구 AI 페퍼스 장소연 새 감독 선임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의 신임감독으로 장소연(사진) 해설위원이 선임됐다.

현역 시절 미들블로커 포지션에서 뛴 장소연 감독은 1992년 선경인더스트리에

입단해 실업팀 생활을 시작했고, 1993년부터 2004년까지 대한민국 여자배구 국가대표팀에서 활동하며 2006년 애크랜드 올림픽,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 활약했다. 〈관련기사 18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프로 리그 생활을 하며 한국 배구계의 레전드로 평가받았다. 2009-2012년에는 KGC인삼공사(현 정관장)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뛰며 플레이코치 역할도 수행했다. 장소연 감독은 2016년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8시즌간 SBS스포츠에서 배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페퍼스 김동연 단장은 장소연 감독의 선임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과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구단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팀으로 만들어 갈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여정 '북일정상회담' 언급 정부 "일본과 긴밀히 소통 중"

정부는 25일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별도 경로로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해왔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주장에 대해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핵·북한 문제 관련 일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한미일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북귀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일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사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납니다! 서남권이 발전합니다!

국제공항이 살아나면 관광객 OK! 기업투자 OK!!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군 공항이 만나 진짜 명실공히 광주·전남의 관문공항으로!

- 무안국제공항은 모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 광주 국내선을 이전해야 국제선도 활성화됩니다.
- 군 공항까지 통합하면 서남권이 더 크게 발전합니다.
- 군 공항 소음 대책 확실히 마련합니다.
- 주민설명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